

특별기획

# 군산시, 미국시장 개척 적극 나서

### 문동신 시장, 샌디에이고 한인·경제인·언론인 간담회 등에 참석 홍보

문동신 군산시장이 세계 속에 군산 알리기와 지역 특산물 미주시장 개척을 위한 군산 마케팅 외교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6박8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문 시장은 21일 샌디에이고 한인·경제인·언론인 간담회와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간담회를 통해 군산의 발전상과 새만금 투자 이점 홍보 및 지역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소개하고 지역 업체의 미국시장 개척활동에 따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과 22일에는 LA 농수산물유통사와 군산시 농수산물품의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농수특산물의 미주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LA총영사관, 코스타 LA무역관장 등 미주지역 주요 기관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군산시 발전상 소개와 지역특산물의 미주지역 진입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과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제43회 LA한인축제” 개막식에 참석한 문 시장은 데이비드 류(LA 한인시의원), 마벨스탈(오렌지카운티 행정집행위원), 로라 전(LA한인회장), 스티

븐 최(허버인 시장) 등 미주 주류사회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핵심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군산시의 발전상과 농수특산물을 소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LA 최초의 한인 시의원인 데이비드 류는 지난 2006년부터 10년간 483개 기업유치와 근대화도시 메카로 급부상한 군산시의 성장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문동신 군산시장은 자매도시 타코마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 도시의 교류증진과 발전적 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막바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 한-미 친선야구대회 개최

군산시 동호인야구팀과 미 공군 군산기지 장병이 함께하는 한-미 친선야구대회가 지난 24일 군산 월명야구장에서 열렸다.

군산시야구협회(회장 문태환)가 주관하고 군산시가 후원한 이 대회는 군산시와 미 공군 군산기지 간 스포츠교류를 통해 상호 소통과 친목을 다지기 위해 6년째 개최되고 있다.

이날 경기에는 군산시 동호인야구팀과 미공군 장병 등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양 팀은 승패를 떠나 서로에게 좋은 스포츠 정신을 보이며 한-미 우호를 다졌다.

9회까지 진행된 이날 경기는 군산시 동호인팀이 미 공군팀을 14대 7로 이겨 지난대회 패배를 설욕했다.

경기 이후 양 팀은 군산시 야구협회에서 준비한 점심을 함께하며 우정과 화합을 다졌다.

군산시야구협회 문태환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군산시와 미군 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친선교류 확대를 지역 사회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 익산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익산시는 영업 신고 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9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 받은 업소로, 모범업소 세부 지정 기준·좋은 식단 이행을 준수하는 업소이다. 모범음식점 지정 최소업소는 2년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고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현지조사 후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에서 최종 결정한다.

특히 이번에는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편의를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업소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정된 업소는 모범업소 지정 및 표지판 교부, 상수도요금 감면, 식품진흥기금 용자 알선, 남음음식포장용기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선진 음식문화 발전과 시설의 위생적 환경개선을 위하여 위생수준이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업소를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원 기자

## 익산시, 석재산업 획기적인 구조개선 방안 모색

### ‘익산석재산업발전 방안’ 포럼

익산시에서는 지난 2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시 지사 회의실에서 펼쳐진 석재산업의 획기적 구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익산석재산업발전 방안’ 포럼을 가졌다.

정현을 익산시장과 안영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석재산업 종사자 20여명이 참석한 포럼은 익산 석재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익산시 투자유치과 유희환 과장은 “익산석재산업 성장둔화 원인을 건설경기 침체와 중

국산 저가제품 유입으로 인한 시장여건 악화, 시설 노후에 따른 생산기반 시설 영세화에 있다”고 밝혔다.

3대 발전전략으로 ▲석재산업 재도약 중심지 마련, ▲지역역량 강화 경쟁력 제고, ▲지역제품 홍보 및 유통 활성화와 이에 따른 8대 중점과제로 ▲익산향토산업육성지원센터 구축, ▲석재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조성, ▲석재산업 발전 진흥법의 조속한 제정, ▲석재산업 미니클러스터 유치, ▲명장선정 및 육성지원, ▲영세석재업체 시설개선 지원 강화, ▲전국 돌문화 축제 부활, ▲석제품 전시판매터 조기 준공을 제시하여 참석한 석재 종사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

았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익산석재산업의 과거명성을 되찾고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는 석재산업이 지역경제 발전의 주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석재산업은 섬유산업과 함께 익산의 경제발전과 부흥을 이끌며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전통적 기반 산업이다.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익산 석제품은 최고급 건설 자재로 각광을 받았고 익산 지역이 배출한 뛰어난 석공 장인들은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치면서 지역의 명성을 드높여 왔다. /익산=정영원 기자

## 수송동,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분석보고서 제작·발표

군산시 수송동(동장 김종진)이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수요를 전망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계획수립과 실행을 위한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작·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수송동 관내 저소득층 360가구를 표본 집단으로 선정해 4개 분야 73개 문항에 대해 복지통장이 대상가구를 방문해 실시했다.

조사결과 조사대상 360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224명(62.2%), 독거노인이 125명(34.9%)으로 가장 높았으며, 응답자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경제적 문제 195명(54.2%), 건강문제 128명(35.6%)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별 주된 수입원은 정부보조금 242명(67.2%), 근로소득 56명(15.6%), 자녀지원 21명(5.8%)순이

며, 생활비 지출상태는 주택관련 비용 116명(32.3%), 주·부식 비용 92명(25.6%), 치료비 80명(22.2%)순으로 조사됐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 방법으로 혼자서 해결 163명(45.4%), 가족 도움요청 103명(28.7%), 주민센터 및 복지기관 도움 요청 49명(13.6%)으로 나타나 공공이나 민간기관의 적극적인 사업안내와 복지서비스제공 및 홍보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경제관련 항목에서는 응답자 중 최근 1년 내 월세 체납으로 이사 경험 33명(9.2%), 공과금을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은 66명(18.4%), 공과금 연체로 단전·단수 경험은 16명(4.4%), 난방비 때문에 겨울에 난방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매우 그렇

다 12명(3.4%), 약간 그렇다 68명(18.9%)로 조사됐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이 병원에 가지 못한 경우는 약간 그렇다 88명(24.4%), 매우 그렇다 10명(2.8%), 최근 1년간 식사를 못하거나 식료품 구입이 어려웠던 경우는 약간 그렇다 84명(23.5%), 매우 그렇다 7명(2%)이 응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과금 납부나 병원이용 어려움, 동절기 난방비, 기본 욕구인 식사 문제 해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진 수송동장은 “이번 복지욕구 조사는 지역주민의 복지수요를 정확히 진단한 복지지표로서 앞으로 지역 복지 방향을 설정하고 복지행정을 펼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당부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권역 심뇌혈관질환의 장애물 최소화 및 재활의료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재활의료서비스 체계적으로”

### 원광대학교병원, 전주시 8개 병·의원과 업무협약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이 전주시 8개 병·의원과 재활의료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원광대병원 예방관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효사랑가족요양병원, 효사랑전주요양병원, 대자인병원, 드림솔병원, 더세움병원, 한솔재활요양병원, 삼남재활병원, 온고을재활병원 등 8개 재활의료기관 병·의원이 참여했다.

원광대병원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센터장 김남호)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권역 심뇌혈관질환의 장애물 최소화 및 재활의료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 재활 병·의원간 심뇌혈관 재활의료 연계 체계를 구축, 지역 내 재활

의료 지원 현황 파악과 안내책자 발간, 홍보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특히 재활치료 질 향상을 위한 간호·간병인력 교육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자의 장애물 최소화하고 재활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연구, 표준진료 지침 프로그램 보급 등 사업의 공동 진행과 상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노세움 원광대병원 심뇌재활센터장은 “전주 지역에서 뜻을 함께 하는 재활의료 관련 병·의원들이 모여 심뇌혈관질환자의 재활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뜻 깊은 일”이라며 “적극적인 연계 체계를 확립해 권역 내 장애환자의 재활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정영원 기자

## 군산의료원, 도 경영평가결과 최고 등급

전북도가 도내 12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2015년도 실적) 군산의료원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가’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위탁평가에 이어 전라북도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 이번 심사는 경영전략, 기관장성과, 고객만족도, 사업성과 등 7개 분야에 대해 기관별 성과보고서 접수 검증, 기관장 심층면담을 포함한 현장평가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건전재정·조직관리 지표를 강화하고 예산회계분야는 공인회계사가 평가를 전담했으며 기관장의 리더십

을 평가하기 위해 현장 심층 면접방식을 도입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 개선이 이뤄졌다.

군산의료원은 원광대학교병원 위탁 운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이후 2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는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써 경영개선과 고객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점이 인정을 받았다.

특히 2014년 대비 2015년 당기순이익이 35억 증가했으며, 간호·간병봉사자 우수사례로 표창을 받는 등 환자 보호자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군산=문정곤 기자



Hello Modern  
군산시간여행 테마파크



DreamHub  
GUNSAN

근대, 추억을 만나다

# 군산시간여행 축제

2016.9.30 Fri ▶ 10.2 Sun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및 월명동 일원



군산시  
GUNSAN CITY

시간여행문의  
관광진흥과

T. 063) 454-3343 festival.gunsan.go.kr

\*시간여행 드레스코드(교복·양장 등)에 맞는 복장으로 행사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